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10년 활동 10대 뉴스는?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선정

내일 광주시청 10주년 총회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사회에 알려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12일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승소'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4일 오후 7시 광주 시청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열린 '10주년 정기총회'에 앞서 이날 자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창립된 시민모임은 그동안 1인 시위, 거리캠페인, 일본원정 투쟁 등을 통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29일 74년 만에 광주 출신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난 7일에는 미쓰비시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절차에 착수했다

또 시민모임은 2012년 3월 광주시와 전남도(2013년) 등 지자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쳤다. 이후 서울(2013), 경기(2014), 인천(2015), 전북(2016)까지 피해자들에게 매일 생활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끌었다.

2017년 1월 촛불시위 과정에서 새마을회의 과도한 특혜 문제를 제기해 지난달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완전폐지에 이바지했다.

6·25전쟁 당시 활약했던 김백일(1917~1951) 장군이 일제 강점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전력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광주시 서구 쌍촌동 백일초등학교 교명을 성진초등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쳤다.

2009년 10월5일부터 2010년 7월30일까지 208차례에 걸쳐 시위를 열고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을 광주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투쟁 ▲도교 삼보일배 원정 시위

(2010년) ▲10만 희망 릴레이(2010년) ▲군함도 상륙 무산...일제 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반대 투쟁(2015) ▲고(故) 최현열 열사 분신·운명(2015) 등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소송을 비롯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하는 일은 버겁지만 앞으로 한과 눈물이 서린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99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면서, 이 문제를 국내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9년 3월에 창립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화사한 도심 봄꽃 12일 오후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청 광장 화단의 봄꽃을 보며 다가오는 봄을 느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에도 보조금 부당 수령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여전

시교육청 감사 30곳 모두 적발

광주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우수값·졸업앨범비·영어수업비 등을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회계상 원비를 축소시켜 교육청 지원금을 수천만원씩 부당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원비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학급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학부모 부담비용은 비용대로 타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추가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담겼다.

광주 A유치원은 2018학년도 원비를 교육청에 신고시 2017학년도 44만4500원 대비 1.01% 인상한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원가 1인당 프로젝트 2000만원, 영어 3만원, 정의사고수업 5만5000원을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 인상은 시교육청 기준을 초과한 24.63%에도 학급

운영비 12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광주 B유치원 역시 최근 3년간 졸업앨범비, 우수값, 원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 계좌 송금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받아, 원비 인하 및 동결 유치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교육청을 속여 8565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C유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급식재료로 흥삼액과 흥삼차를 구매한다며 153만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비를 매월 수십만 원씩 내거나,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유치원 등 비리 유형도 다양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을 감사해 유치원 30곳 모두에서 회계비리 등 218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9개 유치원을 감사해 9곳 모두에서 24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김형호 기자 khh@

논·밭두렁 태우다 1338건 화재...해충제거 효과도 없어

소방청은 12일 "봄을 맞아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큰불이 날 수 있고 실익도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시작된 화재는 1338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48명이 발생하고 1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상자는 60대 이상이 83%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농촌진흥청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보다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피한 다음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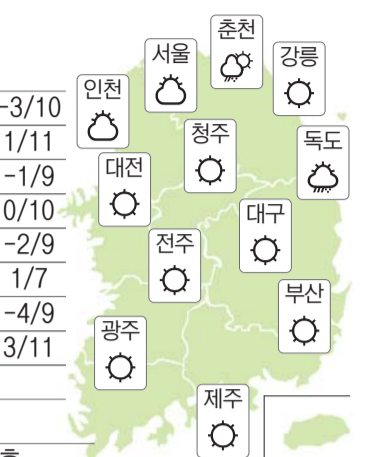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달뜨기 10:37
해질 18:38 달집 10:37

움츠린 아침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 강해 체감온도 낮겠다.

광주	맑음	0/10	보성	맑음	-3/10
목포	맑음	2/10	순천	맑음	1/11
여수	맑음	1/11	영광	맑음	-1/9
나주	맑음	-4/11	진도	맑음	0/10
완도	맑음	2/11	전주	맑음	-2/9
구례	맑음	-3/10	군산	맑음	1/7
강진	맑음	-1/11	남원	맑음	-4/9
해남	맑음	-2/10	흑산도	맑음	3/11
장성	맑음	-3/1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5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3.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1.5~3.0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27	06:18
23:41	18:21	
여수	06:48	00:53
	19:08	12:51

◇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	☁	☀	☀	☀	☀	☀
-1/14	4/12	1/13	2/13	2/16	3/16	5/15

광주 남구의회 백운광장 교통소통대책 건의문 채택

광주시 남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희을 의원이 발의한 '백운광장 일원 교통소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건의문에서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중심지인 백운광장은 상습 교통정체구역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남구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교체공사, 백운고가 철거,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각종 초고층 아파트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대형건설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정체도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백운광장을 포함한 남구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면서 "백운광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대화 아파트에서 서문대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대형건설 공사에 대한 일정조율을 통해 남구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야생동물 83마리 밀렵 2명 고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해 야생동물 83마리를 불법 포획·보관한 밀렵꾼 2명을 적발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연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83마리의 불법 포획을 확인해 위반자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보관된 야생동물 83마리는

고라니·너구리·괘비·물가·살모사·유혈목 등이며 이 중 살·구렁이·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마리나 포함됐다.

또한 영산강청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포획도구 울무 102점, 덫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